

무주, 복합문화도서관 추진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 국비 59억원 확보

무주군이 민선 7기 공약사업으로 내 걸었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가 합동으로 추진하는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선정됐다.

생활SOC 복합화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국민체육센터와 도서관, 주차장 등 다양한 시설을 한 공간으로 모으는 사업으로, 무주군은 공공도서관과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등 3개 시설을 복합화 시키는 내용을 담아 전문가 심사를 당당히 통과했다.

무주군청 시설사업소 박민재 도서관 팀장은 "복합화 3개 시설 건립을 위한 국비지원도 예정이 돼 있어서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보다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무주군 공약사업이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과 맞물려 추진이 되는 만큼 실행력을 키우고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은 무주읍 반딧골전통공예문화촌 일원에 들어설 예정으로 무주군은 2022년까지 총 137.9억 원(국비 59억 원, 군비 78.9억 원)의 사업비 투입해 독서와 교육, 상담, 돌봄, 놀이, 문화활동, 소통이 모두 가능한 시설을(연 면적 4,500㎡, 지하 1 지상 3층)을 조성할 계획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복합화 3개 시설(공공도서관,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부서의 복합화를 총괄하는 기획실이 함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과 운

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효율적이고 활용도가 높은 시설 조성을 위해 주민의견청취와 우수사례 견학, 설계, 행정절차 이행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무주군청 문현중 기획실장은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이 군민 삶의 질과 연관돼 있고 인구문제 해소와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해 갈 수 있는 자원이라 판단해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공약사업으로 적극 추진해오고 있었다"라며 "2020년 생활SOC 복합화 사업 선정을 통해 탄력을 받은 무주군 복합문화도서관 건립사업이 무주발전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제109주기 전해산 장군 추모제 거행

장수군 번암면 전해산 기념관 100여명 참석

호남의병장 전해산 장군 제 109주기 추모제가 7일 장수군 번암면 전해산 기념관에서 각 기관 사회단체장과 유

림, 유족,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번암면유도회가 주관한 이날 추모제

는 초헌관에 장영수 군수, 김용문 의원, 종헌관에 주영성 전북동부보훈지청장으로 제례가 거행됐다.

장수군 번암면 대룡리 원촌마을에서 성대한 전해산 장군은 지난 1905년 을사조약 체결로 국권이 약탈당한 뒤 1908년 500여명의 의병을 거느리고 장수·남원·순창·장성·담양·광주 등 9개 지역에서 70여회의 전투를 치르며 크고 작은 전공을 세웠다.

고종 황제의 밀조를 받고 의병장에 추대된 전해산 장군은 호남인으로는 유일하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에 추서되기도 했다.

이에 장수군은 전해산 장군의 애국 충정을 추모하기 하고 후손에게 물려 주어야 할 유해가 안전된 음력 9월 9일 을 기해 매년 추모제를 지내고 있다.

번암면 정변관 유도회장은 "이번 추모제를 통해 전해산 의병장의 애국충정 정신을 본받고 호국정신의 의미를 되새겨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호남의병장 전해산 장군 제 109주기 추모제가 7일 장수군 번암면 전해산 기념관에서 각 기관 사회단체장과 유림, 유족, 주민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3분기 회의 열려

진안읍 진안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박홍영)는 7일 진안읍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3분기 정기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올 1~3분기 사업추진

실적보고와 함께 특화사업 중간평가, 4분기 사업 추진계획 등 지역의 복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최근 탈북민 모자 사망사건, 전수

어인숙 화재 사건 등 사회적 이슈가 대두되고 취약계층의 생활이 어려워지는 동절기를 앞두고 있는 만큼 협의체 위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숨어있는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는데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대한민국 대표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신나는 예술여행'이 오는 9일 계남면에 복지관에서 펼쳐진다.

꿈꾸는 산대 '걸립' 풍물공연

9일 계남면에복지관

문화 소외지역과 농산어촌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펼치는 대한민국 대표 문화복지 프로그램인 '신나는 예술여행'이 오는 9일 계남면에복지관에서 펼쳐진다.

한국 문화예술위원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신나는 예술여행'은 전문 연주자들로 구성된 꿈꾸는 산대(대표 김정주)팀이 우리 동네 북을 빌어주는 걸립 공연과 무동

놀이, 풍물놀이, 대동놀이 등 평소 접하기 어려운 풍물 공연의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70분에 걸쳐 모두 선보일 예정이다.

김연식 팀장은 "정통 풍물 공연을 접하기 어려운 관내 지역 주민들에게 이번 공연이 개최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무주군국제화교육센터 가을학기 수강생 모집

무주군국제화교육센터(센터장 황운석)가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수시)한다. 가을학기 프로그램은 성인반과 학생반으로 운영되며 성인반은 군민 생활영어(8주 과정, 무주군민: 매주 화, 목 19:00~21:00 / 다문화가족: 매주 화, 목 19:00~21:00)를 비롯한 중국어(기초, 8주 과정, 무주군민: 매주 목 10:00~12:00, 토 12:00~14:00)과정으로 진행된다.

학생반은 킨더(5~7세, 4주 과정 / 매주 화, 목 16:30~17:40), 리틀키즈(초등 1~3학년, 4주 과정 / 매주 화, 목 16:30~17:40), 슈퍼키즈(초등 4~6학년, / 매주 월, 수 16:30~18:00) 과정의 영어교실과 중국어 회화교실(초등 1~6학년 / 매주 토 10:00~12:00)이 운영이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중학교 1학년~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멘토링 / 매주 토 13:00~17:00) 과정도 운영할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국제화교육센터 임흥규 팀장은



"주말 자기주도(멘토) 프로그램은 국내 우수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에게 공부습관과 꿈에 대한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시간"이라며 "국제화교육센터가 언어뿐 아니라 지역 학생들의 건전한 여가와 학습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동안 중국어 교육에 대한 군민들의 요구가 있어 영어 중심에서 중국어 등 군민 맞춤형 교육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라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들이 필요로 하고 유익해 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메아리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 소식지 '부귀사람' 최초 발간

진안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위원장 박영춘)는 7일 소식지 '부귀사람'을 최초로 발간했다고 밝혔다.

소식지에는 마을의 문화, 역사, 여행 등의 소박하고 다양한 이야기를 다루며, 부귀면과 향우 간의 따뜻한 소통의 공간이 되길 바라는 자치위원들의 마음을 모아 발간하게 되었다.

부귀사람은 주민자치위원회 심시일반 마련한 자금으로 발행한 최초의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소식지이며, 계간 발행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주민자치위는 소식지 발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박영춘 위원장은 "생애에 종사하면서도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노고를 아끼지 않은 위원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며 "앞으로도 양질의 자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소식지 발간을 축하하기 위해 '대한민국주민자치실천서' 박경덕 저자도 함께하였다.

김진구 팀장은 소식지 발간을 축하하며 "부귀면 주민자치위원회가 공무원에 의지하지 않고 자립하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었다. 부귀면의 자람이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진안,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요조사

진안군은 농번기 일손부족 해결 방안으로 2020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수요조사를 오는 25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농업분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농가·영농법인과 사업 참여를 원하는 관내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 이내)이다. 사업 참여농가는 농번기에 90일 이내 동안 계절근로자를 영농면적에 따라 최대 5명까지 고용이 가능하다. 월급여 175만원(최저시급 8350원, 월 209시간 기준) 이상을 지급하고 숙식도 제공해야 한다.

군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도입인원 배정을 법무부에 요청하고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이 확정되면 2020년 3월 중 참여농가 및 계절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4월부터 농가에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최성용 군수 권한대행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본격 시행으로 농번기 일손부족을 해결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안정적인 영농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적극적인 제도 도입과 추진을 위해 전담인력 배치와 지원계획도 마련하였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